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어버이

하나님이 되려면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 피의 원리를 말씀할 때에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면 피가 썩는다. 또한 사람의 피 속에는 죄가 있는데,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나라는 의식을 조종하는 피가 바로 마귀의 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했죠?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쁜 마음과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영생의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가 바뀌면 하나님이 되고, 피가 바뀌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고로 영생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항상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바뀐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 고로 결국은 인간의 생활을 하다가 사람으로서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버리려면 나라는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을 버리려면 나를 의식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든지, 가족을 염려한다든지 자신의 장래를 염려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항상 나라는 의식이 살아 있는 고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진짜 어버이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득차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염려만 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만 되면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고로 부자는 물론 못 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사과가 뚝 떨어지고, 또 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배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고기가 와 있고, 금덩어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금덩어리가 와 있고,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주먹한만 다이아몬드가 내 앞에 와 있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날아가고 싶으면 그냥 날게 되어 있는 고로 별나라에 가고 싶으면 1초 동안에 날아서 별나라 가고, 온 우주를 돌고 싶으면 1초 동안에 돌고 오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이기신 하나님이 되면 전지전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신 이긴자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긴자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은 구세주가 가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다음에 구세주가 되는 고로 구세주가 되어야 천당에서 영원무궁토록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화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되어지는, 참으로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이죠? 구세주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류의 엄마

구세주가 여러분들에게 참말로 귀한 존재예요, 우스운 존재예요? 귀한 존재죠? 구세주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죠? 그래서 제단 나오다가 며칠만 빠져도 보고 싶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요술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세주는 인간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고로 마치 애기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애기가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엄마를 찾느라 앵앵 소리 질러 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류의 친 엄마인 고로 자식에게 젖을 주듯 은혜의 젖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한국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면서 참된 말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늘 은혜를 달라고 울면서 졸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마 흘린 눈물을 모은다면 드럼통으로 한 통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눈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영등포에서 신앙촌까지 걸어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고로 차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차를 탈 수가 없었던 고로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전도관 다닐 때에 소사신앙촌에서 마귀라고 상대도 안 해주고 오만제단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고로 이 사람이 중부 전도관을 나갔는데, 그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밀실에 들어가기 전, 전도관 다닐 때부터 수십 년간을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눈물로 애원하니까 은혜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하나님인 고로 눈물로 호소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가 연결되다가 끊어지면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연결을 다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주 눈물에 약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

이 사람이 보니까 해와 이긴자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기 전, 장마가 져서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는데도 해와 이긴자는 걸어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사 신앙촌에서 살 때에 소비조합원들이 천사마귀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방안에다가 던지는데도 그걸 견디면서 거기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영모님이 그걸 아시고 오만제단 뒷동산 아래에 내려가면 현재 밀실 자리인 그곳에 집을 하나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막살이집을 하나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기도생활을 할 때에 먹을 밥이 없는 고로 전봉국 집사의 어머니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냥해온 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 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가는 것입니다. 밥이 없을 때는 산에서 씀바귀를 캐다가 버무려 먹었고, 동냥을 했지만 밥을 적게 얻어올 때는 씀바귀나 쑥 같은 걸 넣어

하단에 계속

구세주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꼭 죽게 될 운명이었으나 구세주가 있음으로써 영생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이어서)

가지고 죽을 쒀서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으신 해와 이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한 세상 생활을 하면서 말로 할 수 없이 굶주리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고로 늘 죽을 쒀서 먹었는데, 죽을 쒀서 먹는 것도 매끼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 죽을 먹으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조금씩밖에 못 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큰집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게 오는 죽을 어머니, 아버지가 더 드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에 한없이 아름답게 보였겠죠? 이 사람은 원래 생김새가 그러한 고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살았지 절대로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구들에게 죽을 양보하고 나니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고로 식구들이 다 잠잘 때에 산에 가서 송기를 먹고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고로 마귀가 굶겨서 죽이든지 병들게 해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의 나이 20살이 되어 군대 나갈 나이가 되니까 6.25사변을 일으켰고, 그때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 끌려가서 총살까지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살아남은 것은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하고 말겠다는 집념이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민군들한테 붙들려 끌려갈 때에 몸속에 수류탄을 감추고 도망을 갔는데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을 때, 다시 붙들려서 끌려가면 틀림없이 총살당할 것을 아는 고로 이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꺼내 보이면서 "이 수류탄 핀을 뽑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죽는다. 총을 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죽든지 총을 쏘던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못 쏘고 있는 고로 "너희들은 내가 도망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어. 안 그러면 수류탄을 던질 거야." 그래 놓고는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기관총을 쏘는 고로 갈지자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관총을 쏘면 총에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총에 안 맞은 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양 신양리 형무소

그러나 결국은 다시 붙들려가지고 형무소에 있다가 한 달 반 만에 총살집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 고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은 너무너무 참혹해서 말을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여자였다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하고 남자인 것을 후회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대개 여자들은 남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남자인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가고 싶은 집도 못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포로생활을 장장 3년간 할 때에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 20세부터 22세까지 포로생활을 했는데 참으로 구세주가 나오기까지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기울임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꼭 죽게 될 운명이었으나 구세주가 있음으로써 영생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덕분에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구세주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영모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것은 사실 이 사람을 영모님이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모님만 보면 늘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분인 고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를 봤지, 여러분들처럼 맹숭맹숭한 얼굴로 예배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 애처롭게 생각하셔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마음이 시원하지 희미하게 받으면 답답해서 못 견뎠던 것입니다. 지금은 혈액형이 없지만 옛날에는 O형이었던 고로 뭐든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하면 안 해버리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지 그렇게 엉성하고 희미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에 영어 사전을 몽땅 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고등학생들보다 실력이 월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세주를 닮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세주를 닮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이고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를 해도 "나 안가!" 한다고 픽 돌아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안가!" 했던 사람이 "따라갈 게 걱정 마." 할 때까지 찐득이 마냥 붙어서 전도를 했던 고로 이 사람한테 걸려들었다 하면 누구든지 두 손, 두 발을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성껏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에게 은혜체험이 가는데, 대개 불성신을 받는 고로 "어? 왜 이렇게 몸이 더워질까?"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은혜가 받아지는 고로 신기해서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빽이 있는 고로 두려울 것도 없고, 안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